

#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오션블루를 차지하라



KOREA

SPATIAL INFORMATION

## 고양시 우수중소기업탐방 ②

### 한국공간정보(주)

한국공간정보(주)는 육상과 해상의 공간 정보를 연구하는 기업이다. 공공측량 및 GIS, 해양의 보전과 이용, 개발을 위한 해양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쓰고 있다.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강자가 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김승현 대표를 만나 한국공간정보(주)의 활약상을 들어봤다.

WRITER. 임기선



한국공간정보(주) 김승현 대표

### 공간 정보의 리더가 되기 위해 2018년 창업

한국공간정보(주)는 측량 및 GIS, 해양의 보전·이용·개발을 위한 수심, 조류, 조석, 생물상 자료를 수집하여 해양조사, SW 개발 및 DB 구축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김승현 대표는 첫 직장으로서 17년의 경력을 쌓은 뒤 2018년 한국공간정보(주)를 설립했다.

“군대를 다녀와서 뒤늦게 토목공학과 지리정보공학에 흥미를 느껴 공간 정보 분야에 올인하게 됐어요. 제가 성격이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직접 보고 발로 뛰고 경험하면서 일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17년 동안 공간 정보 분야에서 일하면서 필요한 자격증을 하나씩 취득했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전문가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김 대표는 직장을 다니면서 10종이 넘는 자격증을 취득했고, 2008년도에는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논문을 쓰며 공간 정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높였다.

“한국에서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최고의 회사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회사 이름을 한국공간정보라고 지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공간을 우리가 장악하겠다, 우리나라 공간 정보의 얼굴이 되겠다는 야심 찬 포부가 있었죠. 육해상 그리고 항공 촬영부터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전문 회사가 되고 싶었어요.”

### 해양 조사에 특화된 해양 전문가 집단

7명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는 5년이 지난 지금 4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발전했다. 2020년 44억 원에서 지속적 성장을 거듭해 올해는 70억 원의 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한국공간정보(주)는 해양조사 탐사 및 측량과 데이터 수집에 특화된 회사로 해양조사 분야의 매출이 가장 높다고 한다.

“주로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로 1년에 100건 이상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중 해양 관련 사업이